

kiri Weekly

2011.10.24 제 153호

이슈

구조화된 지급방식(Structured Settlement)과 시사점

금융보험 해설

금융기관 자기자본제도(5): 신용리스크

국내금융 뉴스

한·일 통화스왑 700억 달러로 확대

8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현황

해외금융 뉴스

북미 _ 주택가격 하락, 경기전망 신뢰도 약화

유럽 _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 강등 전망과 그에 따른 영향

_ 포르투갈, 2011년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 어려움

_ 독일, 유럽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 경고

_ S&P, 스페인 신용등급 1단계 강등

일본 _ 일본 재무성, 4년 만에 지진보험제도 전면 개정

중국 _ 3/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과 긴축정책 완화 가능성

금융시장 주요지표

kiri 보험연구원
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

이슈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,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
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-4 8층 보험연구원 (문의: 김세환 부장 / 02-3775-9051)



구조화된 지급방식(Structured Settlement)과 시사점

조재린 연구위원 / 정인영 연구원

요약

- 인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시금 지급에 따른 조기소진 가능성으로 보험금의 본래 목적인 피해 가정의 소득보상원칙이 훼손될 수 있음.
 - 2010년 총 280,607건의 재난사고가 발생하여 366,911명의 인명피해(사망 6,758명, 부상 359,840명)가 발생함.
 -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은 인적사고 보험금의 조기소진은 생계 및 자녀교육에 곤란을 초래하며 나아가 가정파탄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리스크로 진전될 수 있음.
- 미국의 경우 인적사고 발생 시 보상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적어도 일부를 정기금(연금) 형태로 보상받는 방법인 구조화된 지급방식(structured settlement)을 사용하고 있음.
 - 구조화된 지급방식이란 가해자나 그들의 손해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대신 생명보험회사에 배상책임을 이전하여 연금형태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임.
- 이러한 구조화된 지급방식은 일시금의 조기탕진을 막아 피해자의 재정안정성을 제고시키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조세혜택 등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동 제도를 장려함.
- 이에 우리나라도 기존의 정기금 지급 관련 법규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정기금 수령 필요성에 대한 인식 향상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 -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보험금의 정기금 수령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야 함.
 - 아울러,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정기금 수령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.
- 그 결과 동 제도의 활용을 통해 인적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험금이 단기간에 소멸되지 아니하고, 장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지급되게 함으로써 사고 가정의 건전한 복구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.

1. 검토배경



- 현재 인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시금 지급에 따른 조기소진 가능성으로 보험금의 본래 목적인 피해가정의 소득보상원칙이 훼손될 수 있음.
 - 2010년 재난사고로 인해 하루 평균 약 19명이 사망하고 986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적피해가 발생하였음.
 -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인적사고 관련 보험금의 조기소진은 생계와 자녀교육에 곤란을 초래하며 나아가 가정파탄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리스크로 진전될 수 있음.
 - 미국의 경우 일시금 수령자의 약 90%가 보험금을 5년 이내 탕진하는 것으로 알려짐.¹⁾
 - 특히, 부모 사망 시 보험금 수익자인 유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법정대리인(친족)이 보험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.

- 미국에서는 이러한 일시금 형태의 보험금 지급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금을 연금처럼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구조화된 지급방식(structured settlement)이 활용되고 있음.
 - 구조화된 지급방식이란 가해자나 그들의 손해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대신 양수인(assignee)에게 배상책임을 이전하여 정기금형태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조세혜택 등의 인센티브로 동 제도를 장려하고 있음.

- 본고에서는 미국의 구조화된 지급방식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.

2. 우리나라의 정기금 지급 현황



-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산재보험을 제외하면 손해배상금 지급방식으로 일시금 지급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음.

1) Jeremy N.Babener(2009), Justifying the Structured Settlement Tax Subsidy: The Use of Lump Sum Settlement Monies.

- 「민법」 제751조제2항에서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은 정기금 채무 방식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²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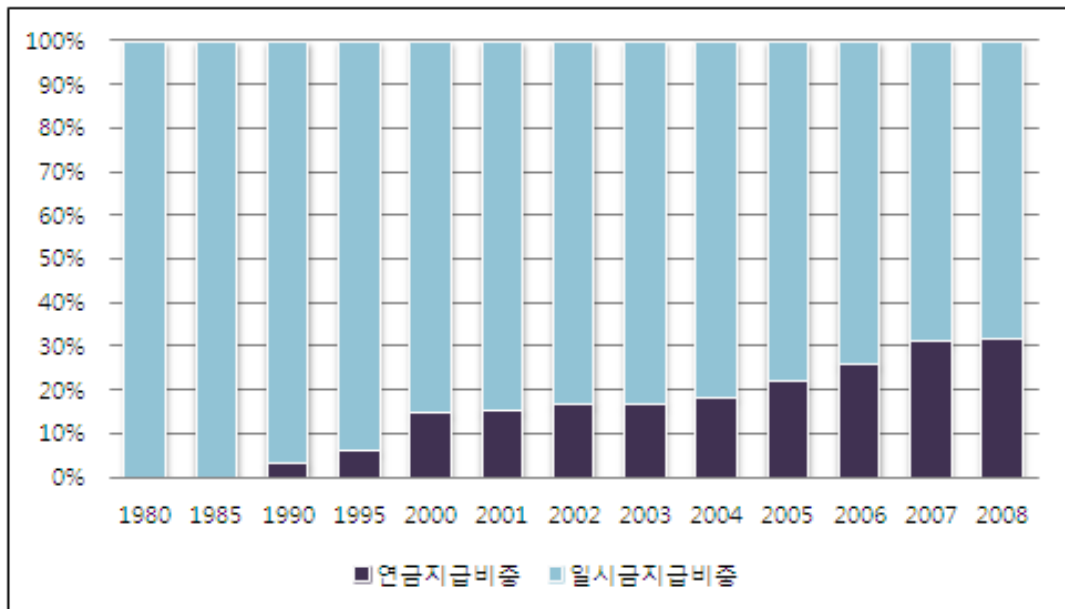
– 그러나 재판 실무에서 손해배상금 지급방식은 대부분 일시금임.³⁾

■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일시금 지급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음.

-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‘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보험금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.’라고 명시하고 있음.
 - 「보험연구원 설문조사(2011)」 결과, 전체의 약 8%만이 이러한 약관 내용을 인지하고 있음.

■ 반면,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사망이나 심각한 후유장애 시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의 지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, 최근 들어 연금보상금이 전체의 30%를 넘어서며 증가 추세에 있음.

〈그림 1〉 산재보험의 연금지급 현황



자료: 산재보험사업연보(2009).

2) 제751조(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).

① 타인의 신체,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.

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,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명할 수 있음.

3) 최은순(2008), 「신체사고에서의 정기금 배상」.

3. 미국의 구조화된 지급방식(Structured Settlemen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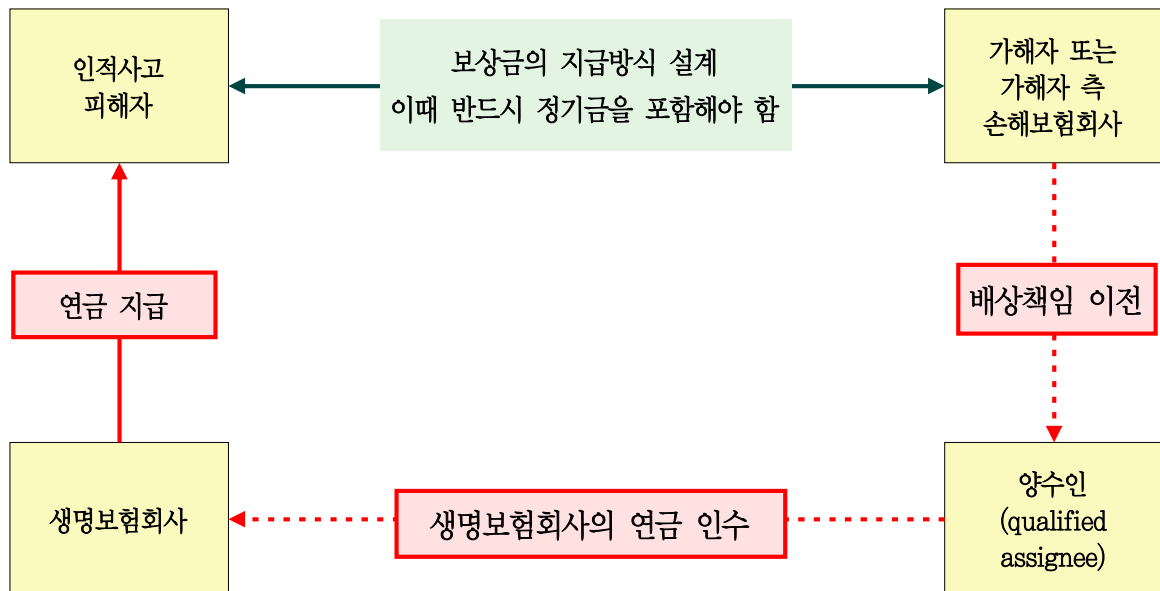


가. 개관

■ 구조화된 지급방식이란 인적사고 발생 시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적어도 일부를 정기금(연금) 형태로 보상받도록 하는 방법임.

- 가해자나 그들의 손해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대신 양수인(assignee)에게 배상책임을 이전하여 정기금 형태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임.
 -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(agreement) 또는 소송(suit)을 통해 이루어짐.
 - 양수인(assignee)은 주로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경우가 많고, 구조화된 지급방식 계약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.

〈그림 2〉 구조화된 지급방식 메커니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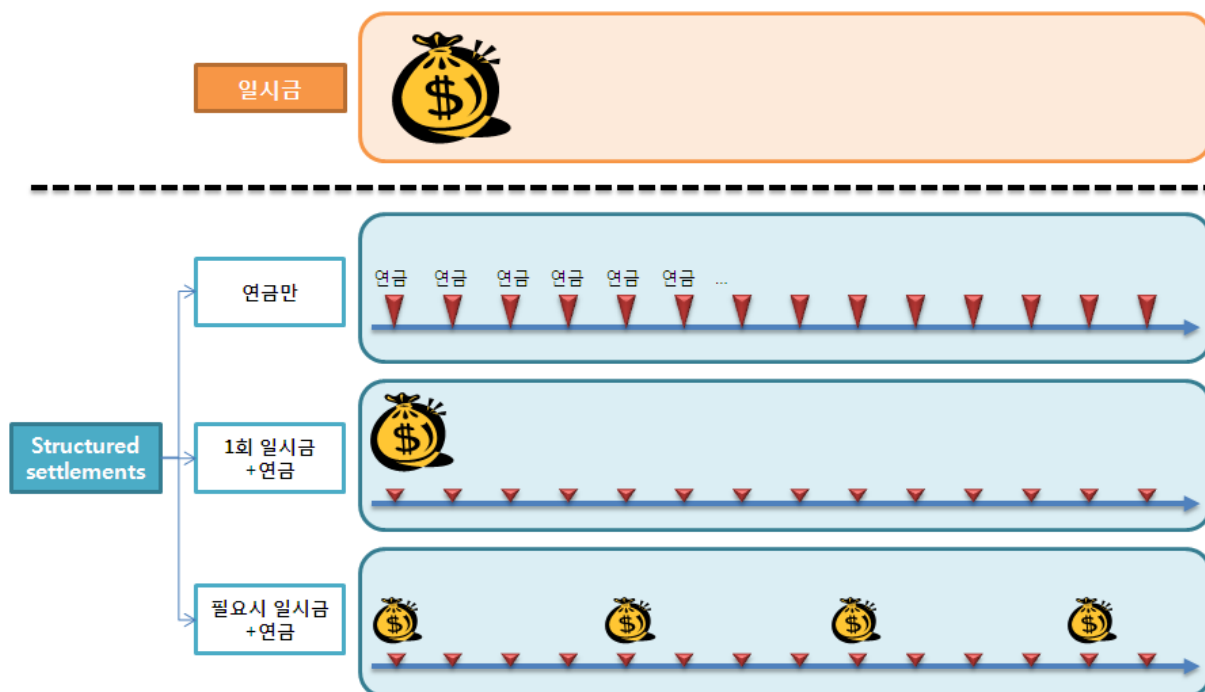
■ 이러한 구조화된 지급방식은 일시금의 조기소진을 막고 안정된 흐름의 소득을 제공함으로 피해자의 재정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임.

- 장기간의 의료케어나 생활비 보조가 필요한 경우, 사망 후 유족에게 정기적인 수입이 필요한 경우, 유족이 미성년자나 무능력자와 같이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 안정적으로 장기에 걸쳐 보상을 지급할 수 있음.
- 보상금 수령은 우수한 생명보험회사의 연금 구입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가해자의 재무상태에 상관 없이 안전하게 급부를 지급받을 수 있음.

■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나 경제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령방법, 지급기간, 지급규모 등 지급방식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음.

- 연금과 더불어 목돈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일시금의 혼합 수령도 가능함.
- 1회 일시금과 연금을 혼합하여 수령 시 일시금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은퇴시기에 맞춰 수령하여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.
 - 생계유지비, 자녀교육비, 소비재구입, 저축, 채무 청산 등이 있음.
- 연금과 함께 일시금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일시금 수령시기를 설계할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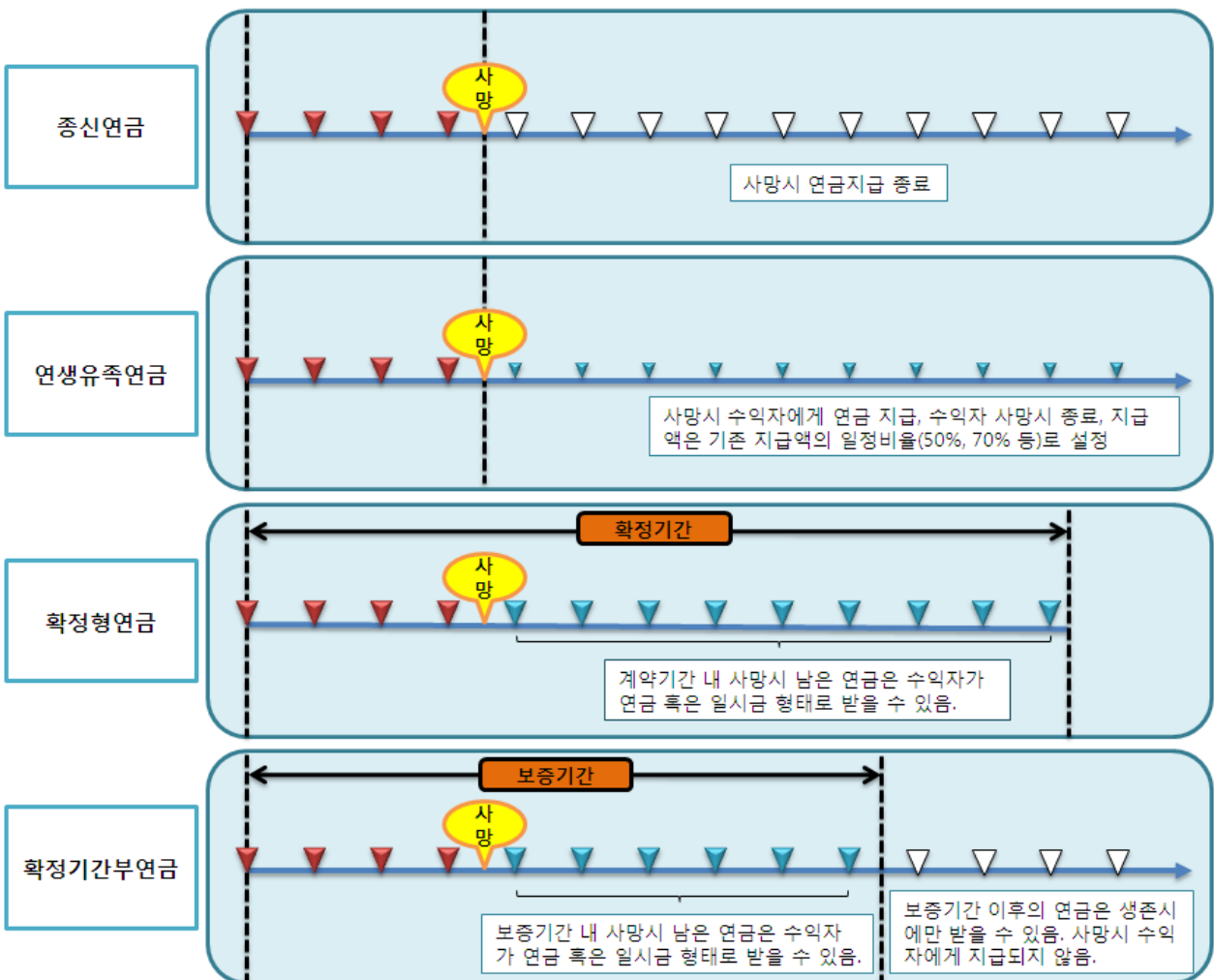
〈그림 3〉 수령방법(일시금 또는 연금)에 따른 옵션



■ 사망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지급보증을 통해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음.

- 연생유족연금(joint and survivor annuity)의 경우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면 남은 연금은 수익자의 사망 시까지 지급되며, 지급규모는 원 지급액의 일정비율로 설정할 수 있음.
- 확정형연금(life annuity certain)의 경우 계약기간 내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연금은 지정수익자가 연금 혹은 일시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음.
- 보증기간부연금(whole life with guaranteed period)의 경우 보증기간 내 연금수급권자 사망 시 잔여기간 내 연금을 지정수익자가 연금 혹은 일시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음.
 - 보증기간 이후의 연금은 연금수급권자 본인의 생존 시에만 받을 수 있으며, 보증기간 이후에 사망할 경우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음.

〈그림 4〉 지급기간과 수익자 지정에 따른 옵션



나. 현황

■ 최초의 구조화된 지급방식은 1968년 미국 Thalidomide 수면제 제조업자인 Richardson-Merrill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루어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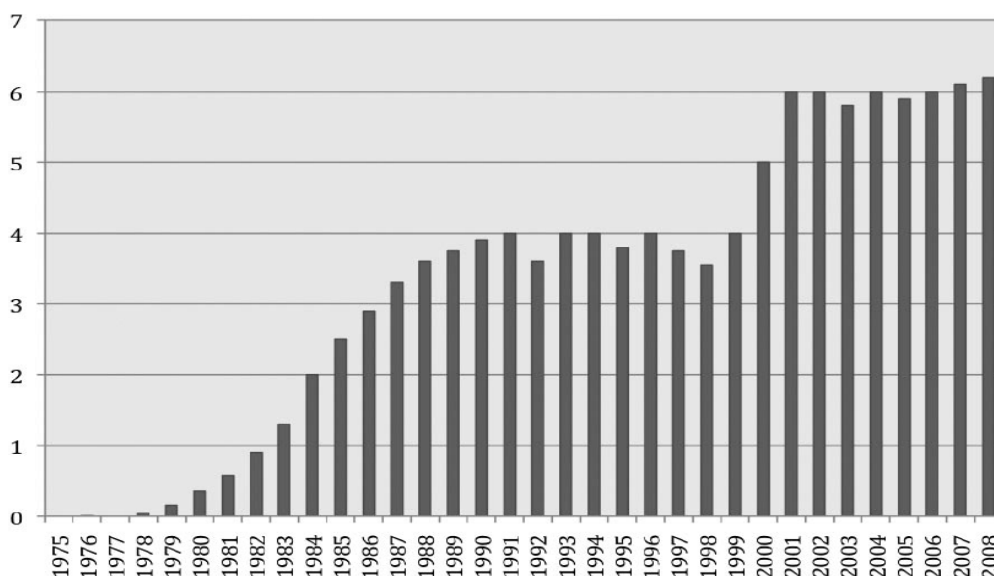
- 원고는 임신 중 수면제를 복용할 경우 태아에게 영구적인 심각한 신체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, 이에 피고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정기금 형태로 지불할 것을 동의함.

■ 이후 구조화된 지급방식은 비과세 혜택의 조세조치로 크게 활성화됨.

- 1982년 Periodic Payment Settlement Tax Act에 따라 내국세법전(Internal Revenue Code, IRC)에 구조화된 지급방식 관련 비과세 제도가 제정됨에 따라 시장은 급속히 성장함.
- 1976년 약 500만 달러, 1979년 3,000건 미만이던 구조화된 지급방식의 연금시장규모가 1983년 15억 달러(15,000건)를 넘어섰고, 1990년대 초반 약 40억 달러로 성장함.
- 2008년 약 60억 달러 이상의 구조화된 지급방식 연금이 판매되었는데, 이는 총 인적상해보상규모인 1,300억 달러의 약 5%로 추정됨.

〈그림 5〉 구조화된 지급방식 연금 판매규모

(단위: 십억 달러)



자료: Jeremy Babener(2010), 「Structured Settlement and Single-Claimant Qualified Settlement Fund」.

다. 관련 세제

■ 미국 정부 차원에서 조세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구조화된 지급방식 제도를 장려하고 있음.

- IRC,Sec.104(a)(1)(2)에 따르면, 산재를 포함하여 신체적 상해나 질병에 대한 보상(징벌적 보상 제외)을 소(suit) 또는 합의(agreement)에 의해 정기금 형태로 받을 경우에도 비과세 함.
- IRC,Sec.130에 따르면, 가해자의 배상책임이전계약(정기금배상책임의 수탁)을 통해 수탁자(assignee)가 안전한 자산, 즉 우수한 생명보험회사의 연금 또는 국채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경우 수탁자의 총비용(수수료 포함)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비과세 함.
- 이 때 정기금은 그 규모와 기간이 고정되어 연금수급권자의 의사에 따라 조기지급 또는 지급연기,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없음.
- IRC,Sec.130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미래의 정기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무상태에 관계없이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되는 권리를 갖고 안정적으로 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는 데 있음.
 - 1988년 「세법」은 구조화된 지급방식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갖도록 변경됨.

4. 결론 및 시사점



■ 정부는 기존의 정기금 지급 관련 법규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, 정기금 수령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함.

- 보험회사에게 인적사고 보상금의 정기금 수령가능 여부에 대해 알립 의무를 부과하고, 구조화된 지급방식에 적합하도록 개인의 니즈에 맞춰 다양한 소득흐름을 보장하는 일시납 즉시연금상품 개발을 촉구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.
- 또한, 인적사고 피해자에게는 보상금의 정기금 수령 시 세제혜택 및 우선변제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기금 수령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.
- 배상책임을 이전받은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배상책임 관련 보상금에 대한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하여 그 차이만큼 피해자의 연금수령액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.